

영산강 고대 문화와의 만남... “줄을 서시오”

2015 국립나주박물관 상설·기획전 풍성

신촌리 금동관 100주년 연구
11월엔 ‘반남 고분군 문화축제’
마한 재조명 학습만화 제작도

광주비엔날레 남화연 작가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참여



광주비엔날레 출신 남화연(36·사진) 작가가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서 초대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 “남화연, 김아영(36), 임흥순(46) 작가가 5월 개막하는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본전시 초청작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는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낸 오쿠이 엔위저 총감독이 기획했으며, 53개국에서 236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남 작가는 베를린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미디어 작가로 지난 2008년 열린 ‘제7회 광주비엔날레’에서 ‘망상해수욕장’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이듬해인 2009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받은 그는 올해 본전시에서 17세기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튕림 파동(Tulipomania)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영상작업을 ‘욕망의 식물학’(The Botany of Desire)이라는 주제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 작가는 김희라 작곡가와 함께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노래’를 드립니다. 쉐 3(가제)라는 설치·퍼포먼스 작업을 선보이고, 임 작가는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촬영한 ‘위로공단’이라는 영상작품을 전시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 지도자 ‘박물관으로의 초대’

국립광주박물관, 11일~4월 1일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지역 CEO, 교장, 박물관·미술관 관장, 문화예술 관계자를 초대해 ‘창조적 지도자, 박물관으로의 초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각계의 전문가이자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 경쟁력의 키워드로 급부상한 ‘문화’ 속에서 창의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별전 ‘조선청화, 박물관으로의 초대’와 연계해 ‘우리 지역 교장 초청의 날’(11일), ‘CEO 초청의 날’(18일),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회원 기관장 초청의 날’(20일), ‘문화예술인 초청의 날’(4월1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창조적 지도자와 문화’ ‘박물관의 역할과 의의’ ‘국립광주박물관 전시’ 등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570-7053.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국보 295호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



‘삼한의 중심 마한’ 중 하나인 원형 전시실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문화인 대형 옹관묘

지난 2013년 11월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이하 나주박물관)이 개관하기 전만 해도 주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다. 나주시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는 탓에 접근성이 떨어져 ‘과연 누가 찾아오겠는가’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천년 고도’ 나주에 자리한 나주박물관은 개관과 함께 새로운 박물관의 모델을 보여주며 사랑받기 시작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유적지 속 박물관’인 나주박물관이 대표 전시품으로 내세운 주변 고분군과 영산강 유역 유물들은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기 충분했고, 지난해에만 모두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다.

나주박물관에서는 올해 어떤 전시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을까.

영산강 고대문화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나주박물관은 올해 상설전과 함께 4차례의 특별·테마전을 선보인다. 신촌리 금동관 발굴 100주년 기념조사 사업 등 고고학 중심 박물관으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함께 ‘반남 고분군 문화축제’ 등 관람객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상설전시관에서는 국보 제295호 ‘나주 신촌리 9호분 출토 금동관’ 등을 비롯해 영산강 유역 대형 옹관과 출토 유물들을 한눈에 만날 수 있다.

올해 첫 기획전은 오는 4월19일까지 열리는 ‘월출산’전이다. 설악산, 주왕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바위산 중 하나인 월출산의 문화유산을 자연경관과 함께 소개한다.

6월부터는 ‘호남지역 주요유적 발굴성과 기획전’이 진행된다. 최근 새롭게 발굴된 영산강 유역 고분 출토품들의 성격과 의의를 소개하는 ‘속보전’이다. 10월에는 나주박물관과 함께 지역에서 고고학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전시를 꾸민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호남의 구석기 문화’전이 진행된다. 호남지역 구석기 유적 및 주요 유물을 통해 지역 선사문화의 특징들을 소개한다.

지난해부터 캠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관람객들과 호흡을 함께했던 나주박물관은 올해 ‘반남 고분군 문화축제’를 처음으로 연다. 오는 11월 반남 문화축제 등과 연계해 열리는 축제에서는 옹관 고분과 관련된 도구만들기, 발굴조사, 유리공방 제작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신촌리 금동관 발굴 100주년 기념사업’은 금동관에 대한 심층조사와 연구를 통해 1500년 전 영산강 유역에서 꽃핀 마한 문화의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한반도 내 삼국시대 옹관묘와 금속제 관묘, 금동관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를 진행한다. 또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대 금동관 및 옹관묘 등을 살피는 해외 현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마한의 역사,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한의 역사’를 주제로 한 학습만화도 제작된다. 이 만화는 2권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반남지역 고고학 연구도 본격 시작한다. 반남지역을 지나는 삼포강 유역에 대한 지표 조사와 함께 지난해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호남지역 사찰과 폐사지, 그 권역의 문화유산 정리 작업도 시작한다.

이 밖에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박물관 속 숲 여행’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마한 문화아카데미’ 등 전원 속 박물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061-330-7800.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하늬’의 풍류와 멋

목요상설무대 12일 빛고를 국악전수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기악연주자들로 구성된 전통기악실내악단 ‘하늬’가 목요상설 무대에 선다. 12일 오후 7시 서구 빛고를 국악전수관.

하늬는 이날 공연에서 ‘남도굿거리·성주풀이’를 시작으로 금강산과 시원한 동해바다의 모습을 담은 ‘금강산타령’, ‘동해바다’, ‘신벚노래’, 경쾌한 ‘동백타령’을 선사한다. 또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중심으로 각 악기들의 산조 솔로들이 어우러진 ‘산조합주’도 만날 수 있다.

하늬는 전남대 국악과 출신들로 남도의 민속악을 재구성해 담아내는 그룹으로 하나의 음, 하나의 음악,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성평등 정책사업 공모

광주여성재단은 오는 20일까지 현장형 성평등 정책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평등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현장의 정책과제 발굴 및 여성역량 제고를 위해 ‘세대공감 광주형 여성정책 발굴’, ‘오월여성 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지역여성역량강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6~9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대공감 광주형 여성정책 발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발굴과 지역연구과제의 지역실현사업, 미래지향적 평등문화지향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월여성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은 오월여성정신의 전국적 확산과 성평등한 인권도시 광주 정립을 위한 자료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내용이고, ‘지역여성역량강화’는 여성주의 감성리더십 향상과 인권감수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 제안 사업이다. 문의 062-670-05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린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